

哲學片感(一)

-哲學을 왜 非難하는가-

朴相鉉

今日 朝鮮 社會는 思想 上으로 보아 混沌 低調의 狀態에 處하여 있다. 各種의 思想이 滿張의 形勢로 高調되어 있는 것이다. 그 中에도 流行思想이란 怪物이 엮어 朝鮮天地를 無秩序하게 함부로 構行하며 闊步하는 것이다.

勿論 多數 한 各種의 主義主張者들이 모다 얼마마한 科學理論과 組織的 體系가 있고 그 實行에 있어서 徹底하다면 可하여 朝鮮의 思想界를 混沌 低調라고 부르겠는가? 筆者의 眼目에 反映하는 多數한 主義, 主張者들은 (勿論 全體는 아니다) 知識分子일지라도 自己의 가진 思想에 對하여는 銳敏한 反省과 冷靜한 批判을 가지지 않는 것 같다. 特히 流行思想을 盲奉하는 사람들은 自己의 社會的 任務라든가 自己의 思想에 對하여 秋毫의 反省과 覺醒을 가지지 못한다. 英國의 『프래시스 쾨콘[프란시스 베이컨]』은 流行思想을 아모 吟味, 批判도 업시 信奉하는 者의 가지는 偏見, 卽 先入見을 劇場의 偶像이라고 불렀다.

何如튼 그러한 偏見을 가진 사람들은 흔히 自己의 學的 良心을 忘却하는 故로 自己의 思想과 다른 思想이라든가 自己의 趣味에 맞지 않는 學問이면 理由업시 輕蔑하고 非難하기를 조아 한다.

輕蔑! 非難! 이 얼마나 何等의 價値업는 所爲이냐? 더구나 學問을 研究하는 學徒에 있어서는 學問의 非難이란 絶對의 禁物이다. 輕蔑과 非難을 □□하고 正當, 批判的 態度的 學究的 態度로써 學問을 對하는 것이 學徒의 取할 바 態度인 것이다. 지금 여기에서 筆者는 題目과 가튼 論題를 거러노코 哲學에 對한 □□라 할지 或은 哲學의 難非, 難論이라 할지 如何튼 哲學에 對한 非難을 批判하여 그들의 非難의 不當性을 업시 指摘하련다. 卞라서 非難者로 하야금 哲學을 誤解하지 말고 正當히 理解하도록 하고 심흔 것이다. 그러면 그들의 非難 속에 包含도니 論理的 矛盾性과 事實的 非妥當性을 發見하기 爲하야 마치 醫師가 手術臺上에대 重病體를 올려 노코 冷靜히 그 病體를 打

診하고 解剖器로써 病體를 解剖하여 病菌을 □□하듯이 나 亦冷靜한 態度로써 그 非難이란 病體를 解剖器를 들어 그 解剖를 한번 誑하련다.

나의 解剖器인 이 붓 한 자루가 무엇 그리 銳器가 될 것이라고는 생각지 못한다. 그러나 붓을 드는 나의 態度가 淸까지 眞摯的으로 나가겠다는 것만 미리 約束한다.

×

그러면 大體哲學에 對한 非難이란 어찌한 것인가? 첫 재로 그들은 哲學이란 學問은 吾人の 現實生活에 何等의 實用的 實際的 價値를 供與하지 못하는 時代를 超越하는 學問이라고 한다.

이 非難을 論破하기 前에 먼저 前提的으로 哲學의 本質을 端的으로나마 말하지 않을 수 없다.

哲學의 定義는 各 哲學者에 차라 相異하다. 上古 希臘 哲學者에 잇서서는 哲學은 形而上學이었다. 그러나 『아리스토텔레스[아리스토텔레스]』以後 論理時代에 와서는 哲學은 一種의 處世術이었다. 中古에 와서는 哲學은 神學의 奴僕이 되고 마랐다. 그러든 것이 大哲 『칸트』에 와서는 哲學은 認識論이었고 新칸트 學派의 『빈델만트』에 와서는 哲學은 普遍妥當의 價値의 學이었다.

哲學概念의 變遷을 여기에서 길게 詳述 할 바가 못됨으로 그 變遷에 對하여는 略하기로 하고 다만 哲學概念이 그와 가티 變遷함에 依하여 哲學의 定義가 相異하다는 것을 말하고자 할 뿐이다. 그러나 變遷하는 哲學의 概念 속에서 哲學의 一般的 定義를 차출 수가 있다. 그것은 哲學이란 學問은 人生과 宇宙의 根本的 原理를 研究의 對象으로 삼는 學問이라는 것이다.

좀 더 換言한다면 哲學은 사람의 理論的 要求와 實際的 要求를 滿足시켜주는 學問이며 차라서 高尚한 眞理가 잇는 學的 人生觀, 宇宙觀을 建設하는 學問이라고 말할 수 있다.

哲學의 本質에 對하여는 이 後에 再論하기로 하고 엇갯든 내가 든 哲學의 正義는 哲學을 工夫하는 學徒로서는 누구나 比較的 異論업시 □□ 할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압해 말한 哲學의 本質에서 哲學의 實際性을 넉넉히 推知 할 수 잇는 것이다. 그 本質 上으로 考察하여 哲學의 實際性을 包有하고 잇음을 可認 할 수 잇음에도 不拘하고 難者는 구타여 哲學은 現實生活에 何等의 實際的 價値를 供與하지 못하느니 하여 그 實際性을 否認하는 그 根本的 動機가 □□에 存在한 것인지 참으로 不知의 일이다. 難者 만일 內面的으로 是 哲學의 實際性을 承認하면서도 다만 外部的으로만 哲學의 實際性을 否認한다면 難者는 當然히 『甲은 甲이오, 非甲이 아니다』라는 論理學 上 矛盾律에 싸지고 말 것이며 結局은 自己가 自己를 □□하게 될 것이다.

여기에서 難者는 이러케 말하리라. 우리들의 생각하는 哲學의 本質은 네가 든 哲學의 本質과는 全然 相異하다. 그리고 哲學이란 學問이 學的 人生觀, 宇宙觀을 建設하는 學問이라고 한데도 工學이나 醫學이나 □學처럼 우리의 實際的 生活에 直接 關聯하여 實際的 價値를 □□하느냐? 아모리 해도 哲學은 罔을 求하는 이 世上에서 一個의 罔도 罔지 못하는 學問임이 分明하다고.